

사회적 기업과 하나되는 길  
불교 사회적 기업

# 사회적 기업 아세요?



서울 견지동 조계중 중앙신도회 전법회관 1층에 위치한 '연우와 함께' 내부 모습.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활동이 부처님 가르침의 새로운 실천 방안으로 주목되고 있다. 불교계 사회적기업은 '행복을 나누며 나와 남을 동시에 위한 배움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 되는 형태로 식품유통, 공정무역, 문화사업, 환경사업 등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중인 '연우와 함께'는 불교 관련 사업의 육성과 개발을 통해 취약계층에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으로 사회 전반의 공익 실현에 앞장설 전망이다.

### #사회적기업이란?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

한마디로 좋은 일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기업이다. 이윤추구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은 시민사회(비영리조직)와 기업(영리기업)의 중간형태다. 일반 기업처럼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영리활동을 하면서 창출된 이익을 장애인, 노숙자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 등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노동부에서 인증한 전국 266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으며, 환경과, 저임금, 고용불안 등을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생겨나고 있다. 미국은 사회적기업이 170만개에 달하며 노동자 1160만 명이 종사하고, 유럽은 130만개 기업이 900만 명의 일자리 창출을 낳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된 영국은 5만 5000개로 270억 파운드 이익 창출, 6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 #불교와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은 생존을 위한 경영이 아닌 상생을 위한 공동체로 '자비 나눔'을 실천하는 방안이다. 경제적 이윤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 불교가 무소유와 해탈, 공을 말한다고 해서 불교와 경제활동을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부처님은 경전에 부모, 아내, 자식, 그리고 남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다만 '돈'이 목적이 돼 집착함으로써

고통에 빠지는 것을 경계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일을 한다는 것은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는 일종의 보시 행위다. 대가에 집착하지 않고 진정으로 조직과 사회, 이웃을 위해 일하는 것은 곧 보살행이다. 단순히 이윤이 목적이 아닌 이윤 창출을 어떻게 회향할 것인가에 목적을 둔 사회적기업은 부처님 가르침의 확실한 실천 방안이다.

아무리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행복을 가져올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없다. 현대기업의 경영사상이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반면 불교경영은 행복의 극대화를 지향한다. 행복 추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적 활동을 한다는 사회적기업과 목표가 같다. 철저히 윤리적일 것을 요구하는 불교경영은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의 경영 철학과 맞아 떨어진다.

###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 고려해야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청년층의 유류인력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 취업자를 위한 돌파구로 사회적기업이 대두되고 있다.

20대 고학력 청년층은 직업 선택의 기준으로 내재적 보상을 우선시 하는 사람의 비율이 38.2%로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압도적이다.(2009년 12월 15일 삼성경제연구소 발표). 내재적 보상이란 근로자에게 성취감, 자아실현감, 사회문제 해결의 기쁨과 보람 등의 보상을 뜻한다. 사회적기업의 일자리는 임금 등 외형적 보상보다 일의 보람과 같이 내재적 보상을 통한 성취감이 크다는 점은 불교 문화 콘텐츠를 이용한 사회적기업 설립과 함께 인재양성, 인력확충에도 좋은 해결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생·화합, 참선·명상, 환경운동·생명존중사상, 경전, 불교문화재, 수행법, 사찰음식, 부동산, 연등축제 등은 불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활용해야 할 자원으로 손꼽힌다. 템플스테이, 사찰여행, 음악회, 불교연문매체 등을 활용해 계층별 포교전략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접근을 통한 사회적기업 출범이 가능하다.

# “위대한 성공 아니면 장렬한 전사”



(주) '연우와 함께' 이재희 대표이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30여년 동안 경영 마스터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불교계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최고의 유통전문회사로 종단, 중앙신도회, 스님, 사찰, 재가신도의 공동체로 성장시켜 부처님께 공양 올리겠습니다.”

불교계 제1호 사회적기업을 지향하는 (주) '연우와 함께' 이재희 대표이사.

지난해 12월 출범한 '연우와 함께'를 진두지휘 할 이재희 이사장은 하얏트리젠시, TNT Express, 유니레버코리아, 인천국제공항 등 세계적인 기업에서 인증 받은 30년 경력의 경영 마스터다. 우리나라 대표 불자 글로벌 전문경영인으로 절정의 기량을 갖춘 그가 부처님 성전에 제대로 된 '사회적 기업'을 공양할 것을 발원하고 나섰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살아온 사람입니다. 제가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세계적 기업에서 활발히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 분이 부처님이셨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할 시절인연이 도래했습니다. 다시 부처님께 그 길을 물을 것이고 제 발원을 반드시 회향할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그의 첫 화향지는 불교계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유통전문회사 연우와함께다. 하지만 그에게 연우와함께는 단순한 경영을 통한 이익과 회향 이상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

“유기농 식품을 잘 팔고 못 팔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기업이기에 종단, 중앙신도회, 스님, 사찰, 재가신도를 하나의 연결고리로 묶는 구심점, 한국 불교의 에너지 집결체로 성장 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부처님의 사상과 일치되는 면이 많았다. 포그가 CEO를 지내면서도 놓지 않았던 환경, 지속경영, 여성, 다양성의 화두를 타파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다.

“사회적기업은 불교의 공생사상과 같은 이치입니다. 소모적인 자비행이 아니며, 작나라한 집착을 바탕으로 한 이익단체도 아닙니다. 공존, 공생, 공업, 자비, 보시, 참여와 활동을 통한 이익을 회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은 기본적으로 불교 사상과 밀접한 기업형태입니다.”

독실한 불자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절을 다녔던 그는 전문 CEO로 활동하면서 더욱 부처님께 귀의했다. “100배를 10만 번은 족히 했을 것”이라는 이재희 이사장은 어려운 일에 솔한 좌절과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부처님께 길을 물었다. 하지만 경영인으로 살아오던 그에게 무소유와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불교사상과 기업 활동이 쉽게 연계되지 않았다. <반아심경>의 공사상은 경영을 하던 그에게 20여 년간 '화두'였다. <반아심경>의 '공' '비운다'는 말을 이해하고 '집립 없음'을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으로 말한다면 '투명성' '정직성'이라는 답을 얻었다.

“진정한 자비, 보시, 무소유,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야 비로소 경영이 보입니다. ‘결립이 없으면 고통이 없고 고통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다’는 말이 바로 제 경영 철학입니다. 진정한 대승적인 삶, 그것은 비우면서도 동시에 공해지지 않고, 채우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살한 욕심에 얽매이지 않으며 그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흐르다면 별다른 전략 없이도 성과는 훨씬 좋게 나오거든요.”

발원을 하고 전문 경영 전문가의 시각에서 불교계를 바라봤을 때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경영의 기본인 자본, 전문가인력, 시장이 없으니 제품력이 있을 리는 만무하다.

산발적이고 산만한 운영체제 등은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 정도였다.

“자본은 없지요. 인력양성은 말로만 외칠 뿐이었습니다. 불교계에서 주 상품인 단주, 초, 향 등이 대부분 수입되고 있는데 수입업체 80-90%는 다른 종교인이 운영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상품의 질과 포장은 물론이고 한국불교를 대표할 만한 불교 상품도 하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재희 이사장은 약조권 속에서도 특유의 승부근성과 깊은 불심으로 새로운 사업영역을 구축할 전망이다. 친환경, 친자연, 유기농 장류, 곡류, 반찬류, 등의 기초 상품을 토대로 승가복지,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 공예, 보험, 여행 상품 등을 목표로 삶의 전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생활영역 전반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이뤄낼 것입니다. 10만 불자 동참, 100억의 이익을 내면 바로 착한 나눔을 실천할 것입니다. 승가복지사업을 위한 화향은 곧 훌륭한 인재 확충의 효과를 부를 것입니다. 또 불자 영세업자를 위한 생산자 지원팀을 만들어 회계, 마케팅, 포장, 유통, 레이아웃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도 동국대와 MOU를 체결하고 생산자 실명제, 불교 인증 마크 등을 실시한다. 내년 봄까지 전국 거점 사찰 10여 곳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가게를 열어 불자들의 생산과 유통, 소비의 판로를 개척해 나간다. 또 불심마케팅으로 불자들을 포섭, 종교를 초월해 많은 사람들의 착한소비, 착한나눔 실천이 가능토록 제품의 질에 승부수를 건다.

그는 최근 불교계에 인재가 없음을 절감했다. 이재희 이사장은 “젊은이들을 포섭하지 못하는 불교는 죽은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한국불교의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현대화가 시작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 연우와함께는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경영인, 퇴출 위기에 처한 기업을 업계의 선두주자로 올려온 그의 주특기 발취로 ‘위대한 승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이상민 기자 un82@buddhapia.com



이재희 대표이사.

천기비법 庚寅年 365일매일한장씩 매일운세! 한눈에 훤히 볼 수 있는 래정비법!

천기비법 庚寅年 365일매일한장씩 매일운세! 한눈에 훤히 볼 수 있는 래정비법!

365일매일한장씩 매일운세! 한눈에 훤히 볼 수 있는 래정비법!

4x6배판/칼라제본/436쪽/정가 20,000원  
문고판/칼라제본/436쪽/정가 10,000원

최초화제 신간 귀신뽑는 래정비법! 백초귀장술 上·下

귀신뽑는 래정비법! 백초귀장술 上·下

찾아온 일진, 시간만 가지고 왜 왔는지 무엇이 탈났는지 어떤 귀신이 붙었는지 어느 조상이 탈이 났는지 들어오는 순간 알 수 있는 특수 조사법!

귀신뽑는 래정비법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속속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①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② 신국판/양장본/720쪽/정가 120,000원 #\* 百超백초스님